



퍼거슨시 시위행진 미국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 사살 백인 경찰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소요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 속에 사태 2일째인 25일(현지시간)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중 심가에서 시위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불붙은 인종갈등... 미국 전역 시위 확산

흑인사살 백인경찰 불기소 결정에 퍼거슨시 방화 워싱턴DC·뉴욕·로스앤젤레스 등 곳곳 긴장 고조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의 소요 사태가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에도 계속됐다. 특히 퍼거슨 시는 물론이고 수도 워싱턴DC와 경제 중심지 뉴욕, 그리고 서부 최북단 시애틀 시에서부터 남부 최남단 마이애미 시에 이르기까지 인권 활동가들 중심으로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날 동시 다발로 열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이 닉스 미주리 주지사는 시위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 퍼거슨 시에 주 방위군 수백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퍼거슨에 투입된 전체 병력은 220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대중의 눈을 피해 잠쟁을 거듭하던 윌슨 경관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브라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백인이었더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행동은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차원이었음을 주장했다. <퍼거슨 이틀째 밤샘 시위...전날 방화로 건물 12채 전소=시위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퍼거슨 시 주요 거리를 따라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윌슨 경관의 기소를 주장하는 피켓과 팸플릿을 들고 퍼거슨 시내 일대를 행진하며 대배

심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했다. 퍼거슨 시에 진출 전 시위대 중 약 300명은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 거리행진을 벌이며 농성을 벌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법원에 진입해 '윌슨 경관을 기소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날 오후 늦게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공개된 뒤 약탈과 방화로 아수라장이 된 퍼거슨 시의 잠상은 이날 오전이 돼서야 속속 드러났다. CNN 방송과 AP 통신 등 미 언론은 전날 불기소 결정에 흥분한 시위대의 방화로 퍼거슨 시내 건물 최소 12채가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시위 미국 전역 확산...긴장 고조=퍼거슨 시 이외에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워싱턴DC에서는 시위대가 전날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아침부터 경찰청 앞, 시의회 앞 프리덤광장, 마운트 버논 광장 등지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기소되지 않는 것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퍼거슨만의 이슈도 아니고 워싱턴DC만의 이슈도 아닌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에서도 이틀째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뉴욕에서는 지난 7월 경찰의 목

퍼거슨 시위 미 전역 확산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의 소요 사태가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에도 계속

시위상황
 * 대배심의 부당한 결정에 시위대 이틀째 항의 시위
 * 시내 일부상점 약탈 피해
 * 방화로 건물 12채 전소
 * 경찰차 2대 방화 피해

미국내 시위 확산

미주리주 퍼거슨 시,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워싱턴주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세인트조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세인트조지

조르기 때문에 에릭 가너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주에도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아케이 걸리가 숨지는 등 두 건의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역보다 감정이 격양된 분위기였다.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대는 '살인자 경찰들을 감옥으로 보내라', '퍼거슨에 정의를', '아메리카의 홀로코스트는 계속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날 약 1천 명이 도로 곳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오를랜드 도심에서도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이밖에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애틀랜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휴스턴, 댈러스, 뉴욕 등 다른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퍼거슨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하버드대학 교내신문 편집인 스티븐 리 한인 학생 첫 선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립스'의 편집인에 한인 학생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24일(현지시간) 하버드 크립스에 따르면 경제학을 전공하는 스티븐 리는 지난 21일 실시된 142대 임원진 선출에서 편집인(President)으로 선출돼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문을 이끌게 됐다. 1873년 창간돼 141년을 맞은 '하버드 크립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일간 신문이며, 현재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학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이 신문의 편집인을 한인 학생이 맡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 한인 여학생인 이인혜 씨가 편집장(Managing editor)에 뽑혔을 때에도 화제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 샌 버너디노 출신인 스티븐 리는 '하버드 크립스' 기자로 활동하면서 캠퍼스 내 성폭력 문제, 무주택자 문제 등 130여 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엔 편집장으로 선출된 매달린 콘웨이와 함께 다룬 교내 성폭력 관련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하버드 크립스' 임원진은 이른바 '터키 쏘'(Turkey Shoot)으로 불리는 방식에 따라 선출된다.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임원진이 모두 모여 투표를 하며, 75% 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팬카페' 회원 268만명

뮤직비디오도 폭발적 인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팬카페'로 알려진 '시진핑을 배우는 팬클럽'(學習粉絲團)에 가입한 누리꾼이 25일 현재 268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랑웨이보(新浪微博)에 개설된 이 카페는 2012년 11월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한 것과 거의 동시에 개설됐다. 2012년 12월 이 카페의 팔로워가 약 5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년 만에 50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 카페는 관영매체 등을 통해 소개된 시 주석과 부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의 동정, 발언, 사진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과거 관영 매체보다 일찍 시진핑의 광둥(廣東)성 시절 소식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중화권 매체는 운영자의 '정체'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 카페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 시 주석의 각종 공개활동에서 사용한 모자, 우산 등을 판매하는 소품몰도 개설해 화제를 낳고 있다. 물론 '짜퐁'이다. 한편, 시 주석 부부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다다는 평마마를 사랑해'란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18일 인터넷에 올라온 이후 일부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45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인 환구망 등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신라시대 '탄생불' 7명 체포

다시 훤친 한국인 5명 체포

한국인 5명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의 한 절에서 불상을 훤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한일 외교소식통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시 미쓰시마 초(美津島町)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梅林寺)에서 불상을 훤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70)씨 등 40~70대 한국인 남성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24일 오전 10시~오후 1시 50분 사이 바이린지에서 높이 약 11cm의 구리 불상인 '탄생불<사진>'을 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탄생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24일 오후 2시께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김씨 일행을 검문해 탄생불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4명을 체포했다. 이어 25일 나머지 1명을 체포했다. 탄생불은 신라시대의 불상이며 쓰시마 시가 지정한 유형 문화재다. /연합뉴스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주최 :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